

TwoWings 1500 vision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

담임목사 **강승신**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56

전화 032.345.8031-2

팩스 032.345.8033

홈페이지 www.ylch.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큰날개 주일예배
(부활주일)

	전통예배 오전 9:00	축제예배 오전 11:00	젊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예배로의 부름 찬양 10장	예배로의 부름 찬양 십자가를 참으신	노피어 찬양단 찬양 주 여호와와
고백과 헌신	교독문 133. 부활절 신앙고백 찬송 160장 기도 박현숙 권사	기도 이승길 장로 성도의 교제	기도 이해수 간사 광고 및 환영
말씀과 결단	요 3:1~15 어두울 때는... 설교 원로목사	로마서 5장 6~11절 (신약 245) 왜 이렇게 기이하게 생겼을까? 설교 담임목사	
축복과 파송	봉헌 165장 축도 담임목사	봉헌 감사함으로 축도 담임목사	봉헌 주님의그 모든 것이 축도 담임목사 나눔과 교제

공동체예배 15:00	4월 예배위원	
가정 예배	[다음주 기도] 전통예배 정은주 집사 축제예배 권진희 집사 젊은예배 최민지 자매	[봉헌] 전통예배 김영숙 이해경 축제예배 박용수 임경진 김화심 박현숙 정세희 젊은예배 박해인 최민선
수요기도회 19:30	5월 봉헌위원	
가정 예배	[전통예배] 김정화 한미라	[축제예배] 서동협 정오영 김해숙 서덕이 정영아



오늘의 말씀

왜 이렇게 기이하게 생겼을까?

[로마서 5장 6~11절]

첫째,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우리의 죄를 ()하신 은혜입니다.

둘째, 구속의 은혜가 ()을 넘어 ()이 되게 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작은날개 목장나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베드로전서 1:13-25]

W

WELCOME

환 영

..... ICE BREAK를 해봅시다.

W

WORSHIP

경 배

.....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W

WORD

말 씀

언제 큰 허탈감을 느꼈습니까?

-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 시험을 마치고 나올 때
- 열심히 일했지만 비어 있는 통장을 볼 때
- 낙방했을 때
-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 가까운 사람의 장례식에서
- 힘들여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쳤을 때
-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볼 때
- 거울에서 주름과 흰머리를 발견할 때
- 기타

Q

QUESTIONS

질 문

1.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13절) 성도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이고 따라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14-15절)
2. 하나님께 주의하며 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7절)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18-19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22절)
3. 본문을 읽고 성도로서 살기 위해 지금 내게 필요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 보기에서 골라 나눈다.
 -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13절).
 - 세상 가치관을 따르던 이전 삶을 청산한다(14절).
 -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15절).
 -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17절).
 -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귀하게 여긴다(19절).
 -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둔다(21절).
 - 뜨거운 사랑을 회복한다(22절).
 -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운다(23절).- 기탁:
4. 위에서 고른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나눠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W

WITNESS

증 거

이번주 행복모임의 진행현황과 베스트와의 관계맺기에 대해서로 나누어 봅시다.

W

WORK & PRAYER

기 도

돌봄이 필요한 목장가족이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1) 문제를 맡기며 기도
- 2) 베스트와 행복모임을 위해 기도
- 3) 치유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 4) 축복기도



인도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2)

- 여성D-1목장 이해경 권사 -

저는 B팀이어서 바라나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바라나시는 제 인생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그 때 그 느낌과 기분 그리고 묘한 냄새까지 그대로 떠오릅니다. 영적인 무지와 혼탁함이 인간의 삶과 내면을 이렇게 만드느구나! 온통 잿빛으로 물든 도시, 회색으로 느껴지는 표정들, 죽음이 삶이 되어버린 도시를 다니며 내내 고통스럽고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바라나시 강은 시신과 뼈가루로 오염되어 강 여기저기에서는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왔고 물은 그들의 영적인 혼탁함만큼이나 혼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배들이 강가에 매여져 있는데 2박3일을 다녀봐도 아무도 고기를 잡지 않는 걸로 봐서 그 강에는 고기가 살지 않거나 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시신이 100여구가 매일 그곳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시신을 태우는 곳이 밤, 낮 이어졌습니다. 하루도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시신을 메고 들어오면 강에 잠깐 담겼다가 석유를 뿌려 태우기 시작합니다. 강에 담그는 것은 강물로 영혼이 속죄되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신을 태우는 그 화장터에는 아이들이 뛰놀거나 돌아다니고 있고 개들은 여기저기에서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인도는 아이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강물이나 강가에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들이 달려들어 먹는 것입니다. 죽은 시신이 던져

지고 뼈가루가 뿌려지는 갠지스강을 신성하게 여겨 목욕을 하거나 물을 퍼 마시기도 하는 장면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막힌 장면들을 직접 보니 다리가 덜덜 떨리는거 같았습니다. 화장터로 가던 길에 제법 큰 뼈 조각을 보았습니다. 아직 피가 마르지 않은 뼈 조각이 왜 길에 널부러져 있는지 알거 같았습니다. 바라나시는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다가 죽음 후에 화장되어 강에 들어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 믿으며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여기 바라나시에서 이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자 목놓아 울고 싶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니 그들은 구원받을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영적인 타락과 무지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 이렇게 한 사람과 도시 그리고 나라가 어둠에 싸여 산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양반과 상놈이 있는 무지한 나라였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구원의 길을 보이고 이제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된 것처럼 인도도 머잖아 그렇게 변할 것을 믿습니다.

세계선교에 복음의 길이 이 곳 인도에서 열릴 것 같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할인지 이 곳과 와서 깊게 깨닫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사람

으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복음의 빛진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우리 가정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낮은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사는 삶,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도록 결단 하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인도 아웃리치는 인도를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웃리치를 다녀오니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날, 한 시간 정도 마지막 전도를 나가게 되었는데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된 건물이 보여 발걸음을 멈추자 여기가 북한 대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가끔씩이라도 보면서 기도하려고요.” 했더니 인솔 선교사가 자기들도 숙소 근처에 북한 대사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행복모임이 열릴 것을 놓고 기도하며 이를 통해 북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가진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도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 아웃리치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아웃리치를 가기 전에는 정부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사업이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것과 대책을 세우지 못해 두려운 감정에 함몰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감사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다. 재정은 최악을 달리고 있지만 유아교육의 문이 닫히니 초등교육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분야와 영역들을 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일이 잘 되도 재정이 무너진 지금 사업을 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걱정이 아닌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따라가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날마다 주시는 평강의 날을 살게 하십니다. 가족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절대능력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향한 기도와 사랑이 가슴에 불이 되어 세계비전을 이뤄가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아웃리치가 정말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지만 특별히 인도 아웃리치는 사랑하는 우리 예일 가족 모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말로 다 전하고 표현 할 수 없는 인도 아웃리치, 정말 가보시면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짝으로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신 기도짝과 목사 그리고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늘 먼저 가서서 이렇게 행복한 연합선교와 아웃리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 아버지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연합선교로 세계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칼럼

부활 신앙의 능력

세상에서 가장 능력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천안함 폭침 때 잠수하다 순직한 한주호 준위를 홀로하게 보는 것은 죽음의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 다. 자기 책임도 아닌데 죽음에 연 연하지 않고 뛰어난 그를 흠모하는 것입니 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 의 부활이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예수님 이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모든 인생 위에 군림하던 사 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 셴 습 니 다. 부활신앙은 이론이나 논리가 아닙 니 다. 철학이나 심오한 학문이 아니라 현실 이요 삶입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 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부활을 증거하였고 그 보람으로 살았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 을 빼면 남는 것은 빈 껍데기 뿐입니다. 위 대한 사상과 진리, 도덕과 윤리가 있다해도 부활이 없으면 모두 거짓입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할 이유, 참아야 할 이유, 베풀어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 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삶에 실질적인 능력 입니다.

의와 진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불의의 세상이 총동원되어 갖은 모략과 음모, 술수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각종 불 의, 편법, 억지, 술수가 승리한 것처럼 보 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 하셨습니다. 이땅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 게 진리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 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 당시 정치, 종교, 사회 전체가 야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받았습니다. 잠시 저들이 승리하는 것처 럼 보였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 심으로 세상에서 예수님 없으면 아무 것도 안된다고 선언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 도의 의와 진리가 승리했다고 가장 강력하 게 선언하신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인생은 죽음과 무덤이 종착역이 아닙니 다.

사람들은 죽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여깁니 다. 무덤이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 때문 에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삽니다. 사람의 최

종 목적지가 무덤이 아닙니다. 죽음이 인생을 영원히 가둘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무덤이나 죽음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묻어 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생명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웠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강한 웅변이 부활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열한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고 확신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대속의 죽음이 모두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모두 역

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이 가시면서하신 약속,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것만 남아있습니다.

저는 아직 울릉도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울릉도가 어디 있는지, 어느 도에 속해있는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잡는 오징어도 먹어보았고, 울릉도에서 태어난 사람도 만나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울릉도가 없다하면 저는 그런 사람을 미쳤다고 합니다. 정신 나갔다고 상대도 안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이 확실합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더 확실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주 도기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 흔들림 없는 비전과 영력과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끄시고, 봄사역을 준비하게 하소서.

- 목사님에게 영적 담대함과 민감함을 허락하시어 언제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2. 봄 사역을 위해서

- 봄사역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5월 첫주에는 모든 사역들이 힘있게 시작되게 하소서.

3.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 인도에서 코로나로 인해 한국인 비자를 전부 무효화 처리를 하게되었고, 다시 해외를 나가면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선교사들이 관광비자인 상황으로 비자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발급되도록 하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

1. 김은희 집사

- 6월에 자궁근종 수술을 할 예정인데 그 전에 해야 할 각종 검사들을 잘 받게 하소서.

- 하루 빨리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교회와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지친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하소서.

2. 이승훈 형제

- 선이의 건강과 속쓰림과 입덧 초기 증상이 완화될 수 있게 하시고, 가리는 음식들이 늘어났는데 골고루 잘 섭취하시고, 태아에게도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가게 하소서. 쌍둥이가 태어날 수 있게 하소서.

- 일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은 컨디션 유지하게 하시고,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금주의 감사

-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 온라인 셀모임을 통해 목장이 모이게 하시고, 비전을 나누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복음 전하며 확신 속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 주님,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 날마다 가정의 평안과 건강으로 지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일하시고 뜻하심에 머리 숙여 순종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이번주 소식

1.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난 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 열방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쁨의 절기, 은혜의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3. 3,6,9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4. 새 봄 사역이 준비중입니다. 5월 첫째주에 모든 사역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 여름 두날개 필리핀 아웃리치가 7월 20일(월)부터 25일(토)까지 진행이 됩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4월 30일로연기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유한나 팀장)
6. 1/4분기 정기제직회는 부활주일로 인해 다음주 축제예배 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제직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집사 이상 필수 참석)
7. 5, 6월 셀라이프를 주문 받습니다. 다음주일 (19일)까지 목자 또는 제자대학팀(팀장 : 나승미 집사)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 5,000원 / 연간구독 30,000원)

다음주 봉사

[주방봉사]
주방사역관리 담당 : 정일숙, 황귀순 권사

[청소]
본당 : 여성C-3목장(박영자 목자)
준2층,계단 : 여성D-2목장(나승미 목자)
2층 : 여성B-1목장(김영숙 목자)
3층 : 여성A-5목장(김화심 목자)
비전홀, 멀티룸, 화장실 : 청년공동체

새가족 섬김이

박순례 집사 (섬김이 : 장미경 집사)
조광래 형제 (섬김이 : 한상의 간사)

.. 우리교회는 ..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세계비전을 품고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전체가 모여 감동적인 축제로 드리는 대그룹의 축제예배이며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목장모임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동안 그들을 찾아 쉬지 않고 섬기고
복음전하며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며 열정으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예 배 시 간

전 통 예 배	주일 오전 9시
축 제 예 배	주일 오전 11시
젊 은 예 배	주일 오후 1시 30분
공 동 체 예 배	주일 오후 3시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9시 30분
유 아 부	주일 오전 11시
유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청 소 년 부	주일 오전 9시
작은날개모임	목장별 정한 시간

섬 기 는 분 들

담임목사 강승신	장 로 이성근 이승길
전 도 사 장 효진 권요셉	
원로목사 강경원	원로장로 최기준

온라인으로 예일교회를 만나는 방법

스마트폰 QR코드 어플을 사용하세요.

홈페이지 www.ylch.org

모바일홈 m.ylch.org

페이스북 Yeil0691 Church

KT올레TV CH888, 예일교회 검색

온라인 봉헌 농협 351-0446-9239-73(예일교회)



마을버스

51번, 51-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시내버스

5번, 12번, 20번, 5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75번 (역곡 남부역 하차)

시외버스

83번, 88번 (역곡 남부, 괴안동 입구)